

비움

KT노동조합 소식지
Vol.8



Special Theme
비움으로써 얻는
지혜의 시간, 휴식

- FOCUS | 합병 2년, 글로벌 KT의 진화와 도전
- PEOPLE | 아티스트 곽세라
- 클로즈업 | 대구지방본부
- 프로포즈 | 충남지방본부 대전NSC지부



[뒸]의 옛말

두 발을 모아 몸을 솟구쳐 앞으로 나아가는 몸짓을 뜻하는 말로
높은 곳으로 오르거나 넘어서는 KT노동조합의 위상을 상징



(463-71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T | 031)727-2820 F | 031)727-4815



공정여행으로 더욱 알찬 여름휴가 보내기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찜통더위에 진이 다 빠지지만, 그래도
휴가 생각하면 기운 좀 나시죠?

에메랄드빛 바다, 눈부신 백사장,
야자나무 그늘 아래서 맛보는 꿀맛 같은 낮잠.
생각 만해도 황홀하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 여행은 어땠나요?
관광 상품 위주로 '찍고, 도는' 일정.
빠듯한 스케줄에 쫓겨 오히려 피로가 쌓이는 기분.
정작 현지인과 인사 한 번 나눌 기회조차 없던 기억.
한번쯤 겪어 보셨죠?

뜰에 박힌 여행에 지쳤다면,
공정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떠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행의 기쁨은 두 배로 누릴 수 있는 것.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현지 생활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

여행사와 거대 리조트 기업의 과다 이윤을 억제하고,
현지인에게 적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

상업적 여행을 거부하는 일종의 대안 여행인 셈인데요,
공정무역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겸손한 마음과 보디랭귀지, 현지식과 노점쇼핑, 여유 있는 팁,
그리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가짐만 있다면
공정여행을 위한 1단계 준비 끝!

조금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몸소 부딪히고 체험하다 보면,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 국내 대표적 공정여행 사이트

- 국제민주연대 www.khis.or.kr
- 지속가능한관광 사회적기업네트워크 www.sustainabletourism.kr
- 이매진피스 www.imaginepeace.or.kr

Contents Vol.8

04 KTTU News
하계 휴양소 안내

+ SPECIAL THEME

08 COVER STORY
비움으로써 얻는 지혜의 시간, 휴식

12 TALK TALK TALK

16 PEOPLE
아티스트 박세라

+ KTTU NETWORK

20 FOCUS
합병 2년, 글로벌 KT의 진화와 도전

24 RESEARCH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발대식

26 ISSUE
복수노조 시대, 사용자 시대?

30 CLICK
2011년 제10회 산업안전보건대회

32 TREND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 KTTU FAMILY

36 클로즈업
대구지방본부

40 프로포즈
충남지방본부 대전NSC지부

46 KTTU 현장 01
대전NSC지부 서대전운동팀 이승우 조합원

48 KTTU 현장 02
IT서포터즈 부산북부팀 김상훈 조합원

50 KTTU 동행
조직활성화 전문그룹 (주)잔디와 소풍 대표/교수 김인식

52 해피투게더
KT탁구동호회

56 행복한 오후
다양한 풍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아시아의 4대 여행지

2011년 하계 휴양시설 운영 안내

조합원과 가족들의 여름휴가를 통한 Refresh 기회제공 및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11년 하계 휴양시설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 임차휴양소 | 2011. 7. 22(금) ~ 8. 21(일)
- 수련관 | 2011. 7. 1(금) ~ 8. 31(수)
- 콘도 | 2011. 7. 15(금) ~ 8.21(일)

구분	운영개소	객실수	비고
임차휴양소	26	395	체류형21, 체험5
수련관	6	370	생활입소/외부교육 입소미운영
콘도	23	미정	콘도사 주청, 제주 미운영
계	55	765	

배정 및 선정기준

- 배정 | 기관별 현원 비례(현 수련관 배정방식)
※ 제주(3박 4일)를 제외한 전기관 2박 3일 기준 배정
- 선정 | 최근 3년간 이용실적 점수에 의한 선정(저 득점 우선)

자세한 휴양소 이용 안내는 홈페이지(www.kttu.or.kr)
→ 자료실 → 문서/정책 참조

하계 임차 휴양소 안내

휴양소명	시 간	평 형	내부구조	홈페이지
오투리조트	강원도 태백	30	방2, 주방, 욕실2	http://www.o2resort.com
하이원리조트	강원도 정선	30	방2, 주방, 욕실2	http://www.high1.com
에어포트콘도	강원 양양	23	방1, 거실, 주방, 욕실	http://www.airport.tc.to
동해콘도	강원 속초	25	방1, 거실, 주방, 욕실	http://www.donghaecondo.co.kr
무이밸리펜션	강원 평창	18/23	원룸형/투룸형	http://www.muipension.com
현대성우리조트	강원 횡성	27	방2, 주방, 욕실	http://www.hdsungwoo.co.kr
노보텔엠버서더호텔	부산 해운대	12	방1, 욕실1	http://www.novotelbusan.com
해운대 그랜드호텔	부산 해운대	12	방1, 욕실1	http://www.grandhotel.co.kr
마우나오션리조트	경북 경주	20	방1, 주방, 욕실	http://www.mauna.co.kr
남일대리조트	경남 사천시	10	방1, 주방, 욕실	http://www.namiltte.com
호텔현대목포	전남 영암	10	방1, 욕실	http://www.hyundaihotel.com/mokpo/default.html
켄싱턴리조트지리산남원	전북 남원	25	방1, 거실, 주방, 욕실	http://www.kensingtonresort.co.kr
꿈꾸는 새재	경북 문경	7	방1, 욕실	http://www.dreamsaejae.com
환상의바다 리조트	충남 보령	19	방1, 거실, 욕실	http://www.oceanoffantasy.com
오션뷰리조트	충남 보령	15	방1, 주방, 욕실	http://www.oceanviewresortel.com
유로빌리지	전북 군산	27	방2, 주방, 욕실	http://www.gunsanvill.co.kr
현대 수리조트	강원 속초	23	방2, 주방, 욕실	http://www.hyundaisoo.com
대명콘도(단양)	충북 단양	19	방1, 거실, 욕실	http://www.daemyungresort.com/asp/resort/danyang/main.asp
더호텔	제주 연동	10	객실, 욕실	http://www.thehotelasia.com
제주발리리조트	제주 한림읍	18	원룸, 주방, 욕실	http://www.jejubali.com
제주오션스위츠	제주 삼도동	10/12	객실, 욕실	http://www.oceansuites.kr
주룩마을(체험형)	경기 여주	20	원룸형식, 욕실	http://www.julokfarm.com
오토캠핑(체험형)	경기 가평	12	침실, 주방, 욕실	http://www.anycampingcar.com
양양바다캠핑(체험형)	강원 양양	10	방갈로	http://www.badacamp.com http://www.solbatcamp.com
한옥마을(체험형)	충남 공주	12	방1, 욕실	http://hanok.gongju.go.kr
갯벌체험(체험형)	전북 군산	27	방2, 주방, 욕실	http://www.gunsanvill.co.kr



체험형 휴양소 어디가 좋을까?

2011년 체험형 하계 휴양소

올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조용하고 여유로움을 즐기며 환경도 생각하는 녹색 휴가를 떠나 보는건 어떨까요? KT노동조합에서 새롭게 추가 운영하게된 체험형 휴양지 5곳으로 가족과 함께 休~하러 떠나보세요!



갯벌체험 |

전북 군산 / 5월

01

질퍽질퍽! 신나는 갯벌체험과 바다위의 만리장성 새만금 방조제

- 새만금 방조제 드라이브, 부안영상테마파크, 갯벌체험, 패키지 여행 형태로 구성
- 4인 가족 기준
- 문의전화 | 063-471-1112 (www.gunsanvill.co.kr)



주록마을 |

경기 여주 / 5월

02

감자 캐기, 채소 수확, 물놀이 등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농촌체험

- 인절미 떡치기, 감자수확, 계곡 물놀이, 민속놀이
- 4인 가족 기준 (6식 제공, 숙소 황토방)
- 문의전화 | 031-884-6554 (www.julokfarm.com)



한옥마을 |

충남 공주 / 8월

03

백제 역사 문화탐방하고 공주 한옥마을 즐기는 전통 체험과 한옥 구들장 온돌 체험

- 박물관, 무령왕릉, 고마나루길 걷기 & 전통 문화 체험 (차이야기, 책읽기, 과자 만들기)
- 4~8인 가족 기준
- 문의전화 | 041-840-2763, 2792 (hanok.gongju.go.kr)



오토캠핑 |

경기 가평 / 7월

04

가평의 호젓한 호숫가에서 즐기는 여유! 깊은 산 속 한밤의 별빛여행을 즐기는 이색 캠핑카 체험

- 야외 바비큐, 캠프 파이어, 다목적 운동장
- 4~8인 가족 기준
- 문의전화 | 1566-3691 (www.anycampingcar.com)



바다 캠프장 |

강원 양양 / 8월

05

딱딱한 건물을 벗어난 자연 속에서 보내는 하루, 산과 바다가 어울어진 솔밭 바다 캠프장

- 오산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인근, 해수온천 체험
- 4~6인 가족 기준
- 문의전화 | 033-672-3386 (www.badacamp.com)
033-672-8782 (www.solbatcamp.com)

비움으로써 얻는 지혜의 시간, 휴식

조그만 바닷가 마을, 가난한 어부가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사업가가 어부에게 말을 걸었다.

사업가 : 하루에 몇 번이나 출어하시오?

어부 : 단 한 번. 나머지는 이렇게 쉬지요.

사업가 : 왜 두 번 이상 하지 않소? 그럼 몇 배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게 아니오?

어부 : 뭐하러요?

사업가 : 그러면 2년 뒤에는 모터 배를 살 수 있고, 3~4년 뒤에는 두세 척의 배로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소.

그리고 또 3~4년 후엔 냉동창고를 들여 고기를 더 많이 팔고, 또 그 후엔 생선처리 공장까지 지을 수 있소.

어부 : 그런 다음에는요?

사업가 : 그렇게 부자가 되면, 당신은 자유를 얻을 수 있잖소. 이 항구에 앉아 햇살 아래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오후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기타를 칠 수 있는 자유 말이요.

어부 : 내가 지금 그러고 있잖소!

우리 안의 '개미 콤플렉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근로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인 반면 여가시간은 최하위다. '빨리 빨리'를 입에 달고 숨 가쁘게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으며 살면서도, 한편으론 미래에 있을 휴식을 꿈 꾀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역설적 상황에 빠져있는 것이다. 어딜 가나 바쁘다는 말이 당연한 인사말처럼 돼버리고, 바쁘면 바쁠수록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더 중요한 존재로 인식 되는 것 같은 사회 속에 살고 있다. 그야말로 바쁜 것이 미덕인 요즘이다. 어릴 적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솝 우화 '개미와 베짚이'의 교훈에서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사회는 신다는 것에 대해서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죄책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연의 리듬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게으름도 나태함도 아니다. '쉬다'라는 단어는 편안하게 피로를 푼다는 뜻을 가진 동사지만 '숨쉬다'와 같이 호흡의 의미로도 쓰인다.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쉬는 것 역시 생명의 필요 조건이다. 휴식은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회복의 과정이며 우리 몸이 재생하고 생존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시간이다.

자연에는 리듬이 있다. 낮이 밤으로 밤이 아침으로 깨어나는 과정에도,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 겨울로 바뀌는 계절의 순환에도 어떤 리듬이 있다. 바다와 육지 사이에도 조수의 리듬이 존재한다. 자연에는 이처럼 깊은 소리가 들어있다. 모든 생명체는 휴식의 리듬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리듬조차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현대 사회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 무엇이든 끊임없이 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성공을 위해, 끝없는 욕망의 충족을 위해 우리는 쉬지 않는다. 쉬면 길을 잃을까 두려워 무작정 방향도 모른채 길을 가고 있는 모습과 같다.



나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휴식

바쁘다는 의미의 한자 '忙'은 마음과 죽음이 함께 이루어진 말이다. 즉 마음을 죽인다는 뜻이다. 바쁨은 사회에 미덕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를 잃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런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휴식이 없으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 일종의 생존 모드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오토바이가 고속으로 달릴 때는 길가의 작은 돌멩이 하나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체르노빌과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사고, 2010년 에어인디아 추락사고 등 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이들 사고의 공통된 원인은 모두 담당자의 수면부족으로 인한 작은 실수였다. 일상에서 충분한 휴식이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다.

잠시 멈추어서 바라보자

신경생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이 매일 일정량의 카페인이나 니코틴에 적응하듯, 우리의 두뇌 세포와 시냅스 역시 일정 수준의 자극에 길들여진다고 한다. 그래서 바쁜 생활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쉬게 되면 마치 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금연을 하는 것처럼 일종의 금단 현상에 시달린다. 빠른 속도에 중독 된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휴식을 마라톤의 끝처럼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때 취해야 하는 무언가로 여긴다. 또한 어떤 이는 휴식에 관해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휴식은 모름지기 일상적인 것에 벗어나 특별한 곳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 누군가와 즐겁게 놀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휴식은 바로 지금 여기, 일상 속에 있다.

휴식이란 밀도 있는 한가로운 순간을 의미한다. 봄비는 곳에서 일하다가도, 돈을 쓰지 않고도 잠시 내면에 집중해서 고요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진짜 휴식을 즐기는 것이다. 휴식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다. 모든 휴식은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가장 깊은 내면과 만나는 시간, 이것이 휴식의 본래 의미다.

이는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포기하거나 멈추어 서서 순간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는 '화'라는 책으로 유명한 평화운동가 틱낫한 스님이 이끄는 공동체 플럼 빌리지에서는 '주의집중 종(Mindfulness Bell)'이 있다. 종이 울리면 모두들 하는 일을 멈추고, 주의를 집중해서 고요히 세번 호흡을 한다. 그런 다음 자유롭게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간다. 이처럼 우리 역시 일상에서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순간을 선택해 때로는 잠시 멈추어 서서 순간의 행복에 집중해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休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휴식

WHO(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1세기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은 다름 아닌 '직업 활동에서 과도한 중압감으로 받는 스트레스' 였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일을 잘하고 싶을수록 제대로 쉬어야 한다. 휴식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번잡한 외부의 흐름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주변에 대해 차분히 바라보게 한다. 그럴 때 나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두려움에 의한 선택이 아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된다. 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서는 매일매일 긴 행군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어 긴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그들은 며칠 동안 천막을 치고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길을 나선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을 따라잡도록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빨리 달린 자는 그 만큼의 휴식이 필요한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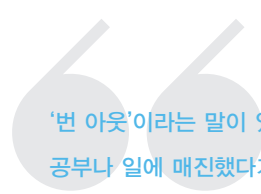
휴식은 작게는 내 몸과 영혼의 리듬에, 크게는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는 것이다. 하루든, 단 몇 분이든 시간의 길이에 관계 없이 한 숨 가다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나를 품고 있는 자연의 커다란 리듬에 편안히 나를 맡기는 지혜다. 겸허하게 내려놓고 내맡긴다면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휴식은 바로 비움으로써, 그리고 버림으로써 얻는 시간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아, 나는 쉬고 싶다. 밀려 드는 업무, 잔소리하는 상사, 선배들의 눈치까지 의연히 이겨냈다. 오늘을 건디면 장밋빛 내일이 온다는 옛 말씀을 새겨 실새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고갈되는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지 않고 어찌 발전이 있으랴. 휴가를 꿈꾸는 계절, 여름이다. 가벼운 스트레스 해소부터 낯선 이국 땅에서 즐기는 망중한 까지. 고달픈 직장인의 대열에 합류한 신입사원들이 들려주는 상큼, 발랄, 엉뚱한 일탈 이야기. 그들만의 톡톡 튀는 여름 충전법!



'번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타버린 것을 의미하죠. 힘든 것을 참고 공부나 일에 매진했다가 나중에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정작 한 번씩 내려가서 쉬어주고 충전해줘야 다시 일할 기운도, 열정도 생기는데 사회도 스스로도 도통 내려가게 내버려두질 않죠. 휴가철 외에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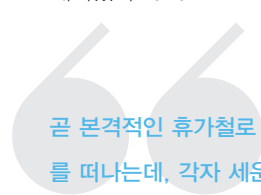
김형수 스트레스 받은 날은 일단 어딘가로 가요. 새로운 호기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안에서 한발 떨어져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4호선의 남쪽 끝이 궁금해서 무작정 오이도로 간 적도 있고, 동네 산 정상 이 궁금해서 나섰다가 길을 잃은 적도 있죠.

김지영 신입이라 익숙이 넘치다 보니 새로운 환경이 주는 나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 신나게 수다를 떨어요. 토요일이면 약속을 세 개나 잡아요. 친구 만나서 브런치 먹고, 또 다른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런 식으로 몸을 혹사시킨 후 일요일에는 푹 쉬어요.

조규범 저와 반대네요. 저는 웬만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토요일이면 일찍 일어나서 노트북과 만화책을 들고 학교 도서관에서 종일 보내죠.

강성환 전 메탈이나 록음악을 크게 들어요. 어떨 때는 저만의 공간인 오피스텔 옥상에 가서 야경을 보면서 시원한 캔맥주를 마시죠.

임세인 저는 주말마다 댄스학원을 다녔어요. 이번 하계수련대회에서 장기자랑도 했었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하. 친구 몇몇과 댄스학원에서 춤을 추다 보면 함께 한다는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져요. 진짜 재미있어요. ^.^



곧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니다. 다들 산으로, 바다로 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는데, 각자 세운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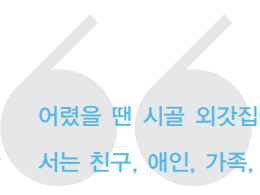
임세인 올 여름엔 가까운 곳으로 친구들과 MT를 가려고요. 1박2일 정도



펜션에서 바비큐파티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보낼 계획이에요.

김지영 전 방콕 여행을 가려고 해요. 소셜커머스에서 여행 반값 패키지가 올라와서 얼른 결제했죠. 입사해서 해외 여행은 처음이네요.

조규범 작년에는 8월초 최고 성수기 때 가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모든 물가가 두 배 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하루 정도만 휴가를 내려고 해요. 대신 9~10월경 홍콩을 가려고요. 쇼핑도 즐기고 벌써 여섯 번이나 다녀왔어요.



어렸을 땐 시골 외갓집에 다녀오기도 하고, 학창시절이나 직장인이 되어서는 친구, 애인, 가족, 혹은 홀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다녀본 여행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조운제 예전에 보라카이에서 6개월 동안 지냈어요. 호텔 업무도 하고, 스킨쿠버도 하면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시커먼 남자와 하루 이틀 지내니까 천국마저 일상이 되어버리더군요. 그 아름다운 비치 라면으로 해장하는 장소로 변해버렸지 뭐예요. 여행은 역시 장소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a

조규범 재작년에 내린천 래프팅을 갔었는데, 엄청난 유속에 보트가 뒤



조윤제 제주도를 스쿠터로 4박5일간 여행했을 때 일인데요. 첫 날 올레길 10코스 해안도로의 풍광에 취해 그만 사고가 났어요. 스쿠터는 박살 나고, 턱과 무릎도 다쳤죠. — —; 돌발 사고에 늘 주의해야 한다는 걸 새삼 느낀 사건이었어요.

여행은 '누구와 가느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떠나게 된다면 누구랑 가장 가고 싶을까요?

강성환 하와이 같은 휴양지는 가족과 가고 싶어요. 혼자라면 아이슬란드. 좋아하는 밴드 '시규어로스(Sigur Ros)'가 아이슬란드 출신이거든요. 아주 몽환적이죠. 그들의 음악세계를 알고 싶어요.

김지영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가고 싶어요. 싸울 일도 없을 거예요.

조규범 이번 연말에는 어머니와 둘이서만 여행을 가볼까 해요. 서른이 되니까 철이 들었는지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집어지는 바람에 죽다 산 기억이 있어요. 물 속에서 대여섯 바퀴를 굴렀는데, 어휴, 이제 죽는구나 싶었어요. ^^;

임세인 얼마 전 신입사원 하계 수련회가 생각나요. 비가 오는데도 2인용 자전거를 탔는데, 뒤에는 남자분이 타서 편했어요.

김형수 사람 하나가 생각나네요. 고비사막투어 때 러시아제 사륜차를 8명이 타고 투어를 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대화도 나누고 밥도 해먹으면서 7일을 보냈죠.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힘든 줄도 몰랐어요. 호주에서는 워킹홀리데이로 8개월간 농장에서 피망과 멜론을 따면서 일했어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너무 힘들었지만 고생하면서 돈 번이라 뿌듯했어요. 등록금도 하고, 노트북도 사고... 지금도 피망만 보면 그 때 생각이???

김지영 전 유럽 여행을 할 때 체코에서 친구가 출금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여행자수표를 바꿀 은행도 문을 닫은 시각이라 주변의 한국 분에게 10유로를 빌려서 로마행 급행열차를 탔죠. 카드 발급하고 한국에서 송금을 기다리던 7일 동안 피자만 연명했어요. ㅏㅏ 정말 먹다 질려서 기내에서 가져온 고추장까지 발라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강성환 전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데,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이 그곳을 기억하게 만들죠. 영주에서는 처음 보는 아저씨와 널뛰기도 하고, 통영에서는 케이블카에서 만난 군인과 술도 한잔 했어요. 하하. ^o^



김형수 그 동안 여자친구만 만나느라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 같네요. 저도 어머니와 프랑스를 가고 싶어요. 혼자라면 남극이요. 좋아하는 황제펭귄도 보고, 극한의 상황을 느껴보고 싶어요.

무조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한시적인 한달 동안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김지영 런던에서 한달 간 살고 싶어요. 런던은 늘 환상으로 남아있는 곳이에요. 오락가락한 날씨도 마음에 들고요.

임세인 저는 한달 간 템플스테이를 해보고 싶어요. 너무 긴가? 자기성찰도 하면서 스님들처럼 소식 하면 살도 좀 빠지지 않을까요. ^^;

조윤제 학교 다닐 때는 해외봉사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직장인이 되니까 힘들어요.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참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 일상이 행복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니까요.

강성환 전 모든 야구장의 핫도그를 먹어보고 싶어요. 각 구장마다 핫도그 맛이 다르거든요. 목적이요? 물론 야구 관람이죠. ^o^;

김형수 열차 여행도 멋진 것 같아요. 시베리아 횡단열차도 좋고, 일본의 각 기차역마다 판매하는 특산물 도시락도 먹어보고 싶네요.

조규범 저는 한달 동안 빠르게 공부해보고 싶어요(일등 와우! @.@). 원하는 자격증을 바쁜 직장인의 신분으로 성취한다면 훗날에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개인고객부문 신입사원들의 여름은 정말 개성이 물씬 풍기는 듯 합니다. 떠남은 다시 돌아오기 위험이라고 했던 가요. 짧은 휴식도 긴 여행도 결국 나의 일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연장선일 것입니다. 오늘을 담보로 내일의 행복을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해 오늘도, 스트레스여. 안녕히!



아티스트 곽세라가 말하는 치유와 행복의 길

남들이 정상(?)이라고 규정 지어놓은 틀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 나이 마흔에 남편도, 아이도, 집도, 차도 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부유하는 삶이 때론 외롭고 불안하진 않았을까? 끊임없이 변화하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작가 곽세라. 그녀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먼 데 있지 않다. 삶이 더 이상 투쟁이 되지 않게 스스로 자기 마음의 안부를 묻고, 한 번 뿐인 내 인생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다.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집필과 강연으로 분주한 곽세라 작가에게 치유와 행복의 길을 물었다.

인도로 가다

소위 명문대를 졸업해 당시 가장 핫한 직업이었던 카피라이터로 일했던 곽세라. 광고회사 4년차가 되던 어느 날 인도로 훌쩍 떠난 여행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 인도정부 초청으로 델리대학교 철학과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 갔지만, 정작 수업은 단 하루도 듣지 않고 아쉬람(ashram)에서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인도 각지를 여행하며 지냈다. 이후 클럽메드에서 6년간 요가 매니저와 G.O(상주 직원)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로를 전했고, <인생에 대한 예의>, <모닝콜> <길을 잃지 않는 바람처럼> 등의 책을 내며 강연과 번역, 방송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영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등 5개국어에 능통한 그녀는 현재 전 세계를 누비며 몸과 마음, 치유와 행복에 관한 강연과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3년차 집사', '21.5세기형 인간', '세상에서 가장 활짝 웃는 여자', '여행 테라피스트' 등 수많은 수식어 중에서 그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은 무엇일까. 사소한 말에도 신기할 정도로 까르르 웃음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활짝 웃는 여자'라는 말에 가볍게 한 표를 던지게 된다.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상대방까지 덩달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녀의 매력적인 웃음에는 구속되지 않는 자유와 열정의 힘이 숨겨져 있다. 지금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곽작가 역시 처음부터 마냥 낙천적인 성격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리 진급을 앞두고 4년차 되던 해, 일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좋은 광고인상도 탔다. 대학원 마지막 논문학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점점 숨 막히는 경쟁사회에서 조바심과 압박감으로 지쳐갔다. 남들 보기에 번듯하고 돈도 잘 벌지만 정작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내 인생에 대한 예의'를 너무 외면하고 살았던 건 아닌가, 너털너털해진 마음으로 인도에 갔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의 인력거꾼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는 게 원래 구질구질하지. 별 일이 다 있어.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서 고마워. 노 프러블럼이야" 세상의 잣대로 보면 남부러운 것 없이 잘나가던 시절, 곽세라는 그렇게 하루키가 말한 '먼 북소리'처럼 누군가 자신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우리가 약속한 삶이 있지 않나? 여기가 아니잖아." 잠들어 있던 자신의 진짜 삶을 흔들어 깨우는 모닝콜을 받은 그녀는 비로소 <소공녀>의 주인공인 '세라'를 통해 막연히 동경해오던 인도로 훌쩍 떠날 수 있었다.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녀는 3년 전, 37세의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인도로 떠났을 때처럼 그림 역시 느닷없이 그녀에게 찾아왔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행복한 사람,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 인생의 의미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 만나러 갔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라.’ 그 말이 제 삶에 굉장한 용기가 됐어요. 제가 고갱보다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일 거예요. 은행원이었던 고갱 역시 여느 때처럼 출근하다 느닷없이 그 길로 타히티행을 결정했잖아요. 욕망이 우리의 손을 잡았을 때 그때 시작하면 돼요. 늦깎이라는 건 없어요.”

자신의 책에 직접 삽화를 그리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거대한 운명의 손에 이끌려 일본 미술대전을 통한 데뷔, 인도에서의 개인전, ‘Art to Heart’ 참가로 이어졌다. 특히,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3월 3일까지 진행된 ‘Art to Heart’는 인도에서 시작한 월드 치유 프로젝트 ‘Heart to Heart’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 전시회에서 6m의 거대한 실크 위에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을 테마로 동양적이면서 치유력 강한 예술적 감성을 선보여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물속에서 두 발로 허우적거리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힘을 풀면 오히려 더 잘 흘러가지요.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숨이 막힐 리 없고 불행할 수 없고 더불어 가난할 리도 없죠. 비록 큰돈을 벌 순 없겠지만, 즐겁고 집중하면 그만큼의 보상도 꼭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 응원가를 부르자

13년차 집시라는 표현처럼 그녀는 27세부터 외국을 떠돌며 생활했다. 머무를 곳을 정해두지 않고 길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 한국에 작업실을 마련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또, 언제 바람같이 훌쩍 떠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이곳에 머물며 신간을 준비하고 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제가 13년차 집시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 잇는 거예요. 요가 스승님께서도 하루 하루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하루를 다 던져버려요. 다음날 일어나면 모든 게 새롭도록. 내가 오늘 했던 것, 입었던 옷, 먹었던 음식들, 느꼈던 감정을 던진 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텅 비우고 껍질처럼 잠이 드는 걸 상상해요.”

그녀처럼 잠들면 우리도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녀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말한다.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은 16초”이며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와서 건드리고 가는 것”임을 강조한다.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와 가슴이 답답하

거나 머리가 아플 때는 먼지를 털어내듯이 손가락 끝으로 톡톡 머리와 가슴을 두드리면 감정이 털려 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조언한다. 마음의 수로를 다른 쪽으로 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머리는 익숙한 길로 그 생각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수로를 차단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부모를 잘 만나서, 혹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자유로이 산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남들이 만들어놓은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소의 뽕처럼 씩씩하게 갈 길을 갔을 뿐이다. 자유와 행복은 그에 따라 주어진 당연한 결과다. 인생을 절대로 심각하게 살 용의가 없다는 관세라. 더 이상 생의 무게를 늘리지 않겠다는 신조를 가진 그녀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강조했다. “더 뜨겁게,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이 멋진 인생을 즐기세요. 가슴 벅찬 환희와 생기의 삶을 느껴보세요.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는 오직 그것 하나니까요.”

나는 다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은 한 사람인 동시에 위로받고 싶어 하는 나약한 한 사람의 몸으로 지구별을 여행했다. 그리고 길 위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만나는 행운을 누렸다.

관세라 지음, ‘인생에 대한 예의’에서



합병 2년, 글로벌 KT의 진화와 도전

국내 최초 아이폰 도입... IT 융합 선도
2015년 비통신사업 매출 40조 목표

지난 5월 KT와 KTF 합병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석재 회장은 “융합의 시대가 한국IT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IT컨버전스 그룹으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KT의 도전과 신념을 강조한 것이다. KT는 합병 이후 지금까지 국가경제발전과 고객감동 철학을 펼치며 IT시장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루어왔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KT는 향후에도 자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컨버전스 혁명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합병 KT법인의 공식 출범

2011년 6월 1일자로 KT는 KTF와의 합병 2년을 맞이했다. 2009년 1월 이사회 결의 후 3개월 만에 이뤄낸 KT와 KTF의 합병은 내부 혁신을 꾀하며 새로운 유무선 네트워크 시대를 열었다.

2000년대 급속히 성장했던 통신 서비스는 후반기에 들어 이동전화 가입자가 줄고 유선전화는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에 자리를 내주는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통신 시장의 이 같은 구조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통신 업체들의 변화를 요구해왔다.

당시 KT는 시내전화 90%,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43%를 차지했던 최고의 통신 기업이었지만 시내전화 가입자 감소와 초고속인터넷의 포화 상태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2003년 이후 매출 12조원을 넘지 못하며 성장 정체 빠져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KTF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SK텔레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한솔PCS를 인수하고 2008년에는 3G 시장을 선공하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지만 시장점유율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석재 회장은 취임 이후 합병은 단순히 KT와 KTF만의 문제가 아니라 IT의 지평을 넓히는 컨버전스 시대의 요청이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합병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두 회사의 합병은 국회에서 두 차례의 관련 토론회가 열릴 만큼 국가적인 관심사였다.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주식 시장이 침체 국면을 맞이해 합병 비용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경쟁사들은 거대 통신사 출범에 대한 견제 심리로 합병을 반대했다. 결국 2009년 2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KTF의 합병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 후 전날 3만5800원이었던 KT의 주가는 3만7800원을 기록했다.

이어 2009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KTF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합병비용은 2980억원이었다.

O!leh!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 장악

2009년 6월 1일 합병 KT법인이 공식 출범하면서 KT는 ‘컨버전스에 기반한 글로벌 ICT리더로 도약’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3.3.7’을 발표했다. 2012년까지 매출액 3조가 증가한 27조, 영업이익률 3%p 증가한 11.4%, FMC가입자 7배 증가한 210만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KT-KTF 합병은 1년여 만에 스마트 혁명, 방통융합 서비스, 오픈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주도하며 놀라운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합병 직후인 2009년 11월 국내에 가장 먼저 애플 아이폰을 도입해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국내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합병KT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자회사 협력으로 비통신사업 확대

2010년 스마트폰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한 KT는 2011년에는 본격적인 컨버전스 및 서비스 이노베이션 기업으로 변화를 모색했다.

유선의 QOOK, 무선의 SHOW로 세분되던 브랜드를 버리고 KT의 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olleh'로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고객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실질적인 결합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브랜드 인지도도 10% 가까이 상승했다.

최근에는 통신영역을 벗어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 자회사를 설립하고 금호렌트카와 BC카드를 인수하는 등 자회사와 협력해 비통신 사업의 매출 비중을 지난해 27%에서 2015년까지 45%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BC카드는 모바일 카드 등 결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KT는 NFC 등 모바일 환경과 인프라를 제공, 금융산업에 IT기술을 적용해 효율화를 높이는 것처럼 각 사의 장점을 살려 자동차 안의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스마트폰이 출입을 선별하는 보안 서비스 구축 등의 언제 어디서나 고객들이 스마트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강화해 기업 대상의 매출 증대에 주력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저장 공간을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모바일 오피스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KT는 올해 말까지 KT업무의 70%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클라우드 서비스는 현재까지 700개 고객사를 확보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KTH, 싸이더스FNH 등과 함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는 올레TV, 나우, 올레마켓, 유클라우드 등 N스크린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디지털 사이니지 등 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한 신규 사업아이템을 10개 이상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KT는 이 같은 계획을 그룹경영 본격화를 통해 오는 2015년 IT서비스·미디어 분야 매출을 6조원, 금융·차량·보안 등 컨버전스 서비스 8조원, 글로벌 매출은 4조원으로 성장시키는 등 비통신 분야의 매출을 2.5배 성장시켜 통신분야 22조원을 합쳐 그룹매출 4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 4일에는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기업고객부문을 글로벌사업본부와 합쳐 'Global & Enterprise' 부문으로 신설하고 분산되어있던 N스크린, M2M 등의 플랫폼 개발을 SI부문으로 통합,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개인고객부문의 무선네트워크본부를 네트워크부문으로 이관해 유무선네트워크 품질을 강화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가능성 실현을 위한 해결과제들도 안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요구, 가입자당 매출 감소, 4G 전략을 비롯한 망품질 강화에 대한 방안, 그리고 기업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시장에 안착시켜야 한다. 또한 올해 말이면 3년 임기가 끝나는 이석채 회장의 연임 여부에 따른 조직의 변화도 변수다.

급변하는 통신 시장에서 '컨버전스&스마트'를 지속 선도해나갈 글로벌 KT의 비상에 세상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합병 1년차였던 지난해에는 매출 20조원, 영업이익 2조원 시대를 열었다.

합병전인 2009년 5월말 1468만 명이던 이동전화 가입자는 지난해 4월말 1634만 명으로 11.3%증가했다. 특히 만 명도 되지 않던 스마트폰 가입자는 415만명으로 150배 증가했다. 가입자 확대와 가입자당 평균 매출 상승으로 무선매출도 13.5% 증가했고, 무선데이터 매출은 합병 전 보다 26.6%증가한 3486억원에 달했다. 또한 아이폰 도입 후 국내에는 30세 미만의 벤처 창업이 32.4%나 많아졌다.

결합시장에서도 합병KT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2009년 KT의 결합상품 가입자는 300만명 이었지만 2년 이 지난 지금은 500만명으로 불었다.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IPTV와 'KT스카이라이프'까지 묶은 KT의 결합상품(OTS : olleh TV SkyLife)은 케이블TV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미지 변화도 가져왔다. 임원들은 직접 SNS소통을 하며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 공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젊은 이미지로 거듭났다. 이와 함께 전국에 무선인터넷인 와이파이 3만 개소를 구축하고, 서울과 5대 광역시에 현대인터넷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에 나서는 등 차세대 사업에 적극 뛰어 들었다.

앱 개발에도 적극 대응했다. 앱 개발자들의 연구·개발 환경과 해외 판로 개척까지 모바일 에코 시스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일본과 제휴해 국내 앱 개발자들이 해외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가로채지 않고, 중소기업과 경쟁환경을 지양하며, KT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2년 동안 KT와 해외 시장에 공동 진출한 협력사는 37곳에 달한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6월 23일(목) 오전 8시 20분 광화문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만들기' 범국민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광화문에서는 KT노동조합 김구현 위원장과 이석채 회장을 비롯해 9개 그룹사 노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두캠페인을 시작으로 KT그룹 6만5000여 임직원들이 전국 370개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국민 캠페인 가두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국민의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이란 2007년 세계7대 불가사의를 선정한 스위스 비영리 재단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가 주관해 오는 11월 11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7곳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28개 국가의 자연경관이 최종 후보로 등록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현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노동조합 10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 새로운 신노동운동과 호스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 "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KT그룹노조 협의회 차원에서 회사와 힘을 합쳐 범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 그룹 노사대표를 비롯한 전 구성원이 똘똘 뭉쳐 KT그룹의 막강한 파워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또한 이석채 회장은 "KT노사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2년 전 새로운 노사관계의 포문을 연 이래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평가한 뒤, "이제 KT그룹 차원에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동력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전화/문자투표 시범 후, 비가 오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선전전을 전개했으며, 이번 KT노사 공동 캠페인은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362개소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앞으로 회사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전국 각지의 올레플라자에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올레닷컴 및 올레 트위터, 올레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광고, 길거리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매월 7일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의 날로 정해 투표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 범국민적인 투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참여방법 | 001-1588-7715 → ARS "삐"소리 후 제주코드 7715 입력
- 참여기간 | ~ 2011년 11월10일 까지
- 요금적용 | 전화 1회당 180원, 문자는 1회당 150원

KT,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제주도가 선정되도록 발로 뚫다

11월10일까지 진행되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는 전화와 문자(001-1588-7715), 인터넷(www.new7wonders.com) 등으로 참여 가능하다.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를 청취한 후 제주 코드인 7715를 입력하거나, 휴대폰 등으로 '제주' 혹은 'JEJU'(대소문자 가능)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된다.



복수노조 시대, 사용자 시대?

‘단결권 보장’ 복수노조 취지 비웃는 ‘교섭창구 단일화’

삼성에버랜드노조가 복수노조 허용을 이틀 앞둔 6월29일 회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올해 7월1일 이후 에버랜드에 설립되는 신규노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인 2013년 3월 말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사례 하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7월7일 오전,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축하행사를 준비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견희 회장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런데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만큼은 달랐다. 에버랜드 관계자들은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잡고 진땀을 흘렸다. <매일노동뉴스>가 이날자로 단독보도한 기사(‘복수노조 허용 직전 삼성에버랜드에 노조 생겼다’)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의 문의전화까지 쇄도했기 때문이다. 에버랜드 홍보팀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지 12시간도 안 지났다.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튿날 “무노조 기업이었던 삼성에버랜드가 회사노조(Company Union)를 만들어 일박기를 시도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에버랜드노조가 복수노조 허용을 이틀 앞둔 6월29일 회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올해 7월1일 이후 에버랜드에 설립되는 신규노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인 2013년 3월 말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사례 둘 경남 창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A사노조 위원장 이아무개씨는 최근 회사에 붙은 공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신규노조가 회사측과 생산라인 4개를 신설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생산라인 신설은 조합원 234명인 A사노조의 숙원사업이었다. 회사측은 그동안 기존노조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렇게 어렵던 숙원사업을 조합원이 12명밖에 안 되는 신규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은 지 5일 만에 회사측과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인 데다, 노사협의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노조가 정체불명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A사노조는 신규노조와 회사 간에 모종의 밀약이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게다가 신규노조는 풀타임 전임자 1명과 파트타임 전임자 2명을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0.5명) 위반이다.

사례 셋 7월 초 부산에 있는 B택시회사에 신규노조인 C노조가 생겼다. 몇 개월 전 회사 간부들이 상조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입했던 기사들이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C노조로 옮겨갔다. 순식간에 과반수를 점한 C노조는 기존노조를 제치고 교섭대표노조가 됐다. 상급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C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향후 2년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는다. 기존노조가 노사협조주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회사측은 C노조를 드러내 놓고 지원했다. C노조가 기존노조와 다른 것은 상급단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밖에 없었다. 택시노동계가 중간택시노조로 분류하는, 이른바 ‘중택’이다. 대부분의 중택은 사용자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회사노조다. 전택노련은 자체 파악한 연맹 소속 복수노조 사업장 58곳 중 44곳을 중택으로 추정했다.

곳곳에 만들어지는 회사노조

2011년 7월1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허용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4일 현재 208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쳤다. 79%인 166개 노조가 양대 노총 소속 사업장에 만들어졌다. 89%인 186개 노조는 상급단체를 선택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어용노조가 있거나 노조가 없는 대기업에 민주노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무노조 대기업이 회사노조를 만들어 교섭권을 선점하거나(사례 하나),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를 적극 지원하거나(사례 둘), 상급단체 가입을 가로막는(사례 셋)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사용자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등에 업고 복수노조 시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잇따라 터지는 현안에 떠밀려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 시대가 아니라 '사용자 시대'로 불려도 될 만한 상황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용자에게만 칼자루를 쥐어 준 게 아니다. 법적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근거한 단체교섭을 살펴보자. 2009년 12월31일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 2010년 1월1일 이후 2011년 6월30일 이전 1사 다수노조 사업장과 단일노조 사업장으로 나눠 살펴보자. 2009년 12월31일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은 노조법 부칙(제6조)에 따라 2012년 7월1일부터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된다.

노동부의 무리한 해석

2010년 1월1일 이후 단일노조 사업장은 노조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7월1일 현재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가 이 조항을 활용했다.

문제는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 사이 1사 다수노조의 경우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각각의 노조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고 본다. 예컨대 7월1일 이전에 D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E노조는 7월1일 이후에도 교섭 중이라고 하자. 그럴 경우 E노조가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다. 노조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르면 7월1일 현재 D노조의 단협이 존재한다. 때문에 E노조는 D노조의 단협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교섭을 할 수 없어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운영 세부 지도방안'에서 이를 허용했다.

해법은 노사 자율교섭

노동부가 법적근거도 없는 논리를 전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조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노조법은 '법 시행일' 당시 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본다. 노조법 시행일을 2011년 7월1일로 볼 경우 기존노조들은 대부분 교섭대표노조가 되고, 2년간 지위를 보장받는다. 노동부가 기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상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노사 자율교섭에 맡기면 될 것을 말이다. 그것만으로도 노조법 개정 이유는 충분하다. 형식상 절차에 불과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따위가 헌법상 '단결권 보장'이라는 복수노조 허용취지를 훼손해서야 되겠는가.



존노조들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조법 시행일을 무리하게 2010년 1월1일로 해석한 것이다. 노동계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보장을 침해하고,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배경이다.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상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노사 자율교섭에 맡기면 될 것을 말이다. 그것만으로도 노조법 개정 이유는 충분하다. 형식상 절차에 불과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따위가 헌법상 '단결권 보장'이라는 복수노조 허용취지를 훼손해서야 되겠는가.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 박운



2011년 제10회 산업안전보건대회

안전사고 예방 & 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

2011년 제10회 KT산업안전보건대회가 6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양일간 도고수련관에서 개최됐다. 노·사 공동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그룹사를 포함한 안전·보건실무담당자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등이 참가해 조합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입소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10회 산업안전보건대회를 위해 대강당 앞은 분주했다. 총 27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오후 1시, '2011 산업재해 Risk 최소화 추진 설명회'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 동향 및 산업재해 분석, 현장 안전활동 현황, 현장 관리감독자의 중요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40분간 이어졌다. 내용에 따르면 KT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는 안전예방 활동의 성과로 전년 동기대비 50%가 감소되었고, 올해는 현장부서 Safety 메시지 발송, 안전포스터/사진 공모전, 노사합동 순회 특별안전 교육, 사고 최소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또한, 하인리히 법칙을 통한 현장 관리감독자와 Risk의 함수관계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면서 관리감독의 중요성과 안전은 습관화와 예방임을 강조했다.

“방심하면 눈물인생! 조심하면 웃음인생!”

이어진 안전활동 우수 사업장 사례발표에서는 앞서 시상된 무재해 인증

사업장 3곳(중부산지부, 금정지부, 충남마케팅단) 가운데 충남마케팅단과 부산마케팅단 금정지부가 발표자로 나서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정지부의 경우, 매주 월요일 안전회의를 실시해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안전관리 우수팀은 연말에 표창한다. 또한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 차량 안전점검 및 안전보호구 실태를 파악해 불량 즉시 조치하고, 자체 사내강사를 통한 소방시설 교육 및 금정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연2회 실시해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남 마케팅단은 2011년을 안전사고 제로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연초 회의 시 특별교육 및 추진문서를 발송했다. 또한 현장부서 안전암행 지킴이 행사, 쿠폰 지급 칭찬 및 계도를 추진해 조합원들의 인식 전환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꼭 지켜야 할 6가지 추진사항” 포스터를 제작해 ‘차량내부 청결유지’, ‘안전모 쓰기 운동 전개’ 등의 안전 마인드를 고취하고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전 조합원들이 동참해 거둔 성과도 주목할만



한데, 안전사고 예방 경영 슬로건 공모가 그것이다. 2011년 최우수작인 “방심하면 눈물인생! 조심하면 웃음인생!”과 같이 당선된 우수작은 현수막과 어깨띠로 제작 배포해서 공감대 형성에 한 몫을 담당하도록 했다. 휴식 후에는 전옥봉 공인노무사로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외근 산업안전 동향’에 대한 강의를 이어지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체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재해처리 절차’ 등 산업안전 및 재해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육행사로 다져진 화합의 장

올해 대회는 특히 안전·건강 퀴즈대항과 단체줄넘기의 미니체육대회가 가미되어 새로움을 더했다. 이후 테니스장으로 자리를 옮긴 참석자들은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도 시종일관 파이팅과 웃음을 잃지 않고 팀의 단합을 위해 감춰온 투혼을 아끼지 않았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된 단체줄넘기는 전체 18개 마케팅단의 각 단별 6명으로 구성된 선수들이 예선부터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환호와 안타까운 탄식 속에 1차 대항을 통과하고 2차대항에 진출한 상위 8개팀은 2팀씩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했다. 그 가운데 막강한 팀들을 제치고 마침내 최종 결승에 오른 ‘전북’팀과 ‘울산/제주’팀의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예상됐던 ‘울산/제주’ 팀의 아까운 실수로 ‘전북’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모두가 참여한 개인별 안전·건강 퀴즈대항은 법률과 건강, 현장안전과 차량안전, 일반상식 등의 아리송하고 다양한 OX퀴즈가 펼쳐지면서 최종 10명에게 상품권의 행운이 돌아갔다. 이어 저녁 식사 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원인별 재해예방’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화합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대회의 의미를 새롭게 다졌다.

이와 함께 대회 2일차는 교통사고 예방 등에 관한 동영상 시청과 박보영 사외강사에 의한 샐러리맨들의 스트레스 대처법 교육으로 대회의 마지막 순서를 장식했다. 이로써 관리자들과 책임의식이 특히 강조됐던 제10회 산업안전보건대회의 모든 순서가 막을 내리면서, KT의 보다 나은 미래는 나의 안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각자의 가슴 깊이 새기고 아쉽게 내년을 기약했다.

Interview _ KT노동조합 김용규 산업안전국장



KT의 산업안전보건대회, 올해로 10회다. 의미를 되새겨본다면?

“KT는 유일하게 노·사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대회를 실시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 ‘안전’이라는 것은 ‘노’와 ‘사’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의 노고를 함께 고민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 활동을 공유하는데 의미가 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대회는 어떻게 달라졌나?

“올해는 ‘2011 안전Leader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교육만이 아닌 직접적이고 유익한 강의와 토론, 또한 외부 미니체육행사, 퀴즈대항 등 웃고 몸으로 부대끼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 조에 두 사람이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거리 도심지의 경우는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교통경찰의 협조를 구하고, 위험한 작업 때는 팀장과 지사장이 연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과 전주 가설 등의 일을 할 때 안전모는 필수다. 여름이면 특히 안전모 착용이 미비해진다. 너무 덥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깐의 부주의로 직장과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전 활동 우수사례의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 할까?

“발표된 사례들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사항들이다. 충남마케팅단 사례의 경우, 순회교육을 통해 전국에 전파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사고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각 팀장과 명예감독관 안전담당자들은 사례를 확대시키고 현안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대회 후에는 관리자들과의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현장의 적용도도 높아진다.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 안전’이라는 것은 ‘예방’이다. 사고가 난 뒤의 처리가 아니라 사전에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 나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사실을 명심하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무엇인가?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반(Cloud)의 컴퓨터기술(Computing)이다.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등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서비스다.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PC,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각종 IT 디바이스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인터넷 상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나 실시간 오피스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는다. 실제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각종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즉,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외부 데이터센터에 저장한 뒤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을 더 이상 지상(PC)에서 하지 않고 구름(Cloud, 중앙 서버) 위에서 처리하는 셈이다. 은행의 ATM이나 항공기·열차의 실시간 좌석 예약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진정한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닷컴 등 여러 업체가 관련 서비스 및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kt의 유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네이버me, 다음 클라우드 등이 등장해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에 돌입했다.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세계는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에 주목하고 있다

매년 10대 IT 트렌드를 선정하는 리서치·자문회사 가트너(Gartner, Inc.)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2010년, 2011년 2년 연속으로 10대 IT 트렌드 1위로 선정했다. 또한 세계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세빗 2010(CeBIT 2010)’에서도 최고의 화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이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일까?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점검해 본다.



사진 : 애플코리아(출처 : <http://www.apple.com/kr/>)

클라우드는 IT 혁명이 아니라 LIFE 혁명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 혁명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변화를 몰고 올 'LIFE' 혁명이다. PC와 인터넷의 대중화가 그랬듯이, 우리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로 일상을 공유하고, 'G메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구글 캘린더'로 일정을 관리하는 등 클라우드 서비스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컴퓨터를 통해 처리하던 일들을 모두 온라인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에서 수행하고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변화는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그 미래는 가히 혁신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주도적이다.

클라우드는 이미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최근, 정부나 기업의 비밀문서를 폭로하는 정보공개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거세지자 위키리크스에 서버를 제공하던 '아마존(Amazon)'은 미국 내 비난 여론에 밀려 위키리크스에 대한 서버 제공을 중단했다. 잘 알려진 대로 아마존은 미국 최대 인터넷 서

점이다. 동시에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클라우드 강자였던 것. 바로 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었다.

한편, 위키리크스의 '위키(Wiki)'는 우리가 '위키피디아(Wikipedia)', '위키트리(WikiTree)' 등으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위키'이다. '위키'란 웹 2.0에서 말하는 '개인 간 컴퓨팅'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사이트를 통한 데이터 업로드와 수정을 통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다수의 사용자가 각자의 PC에서 하나의 문서를 협업 형태로 작성하기 때문에 완성된 문서는 사이트가 호스팅 되는 별도의 서버에 저장된다. 문서의 작성이 익명의 다수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진다는 점,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위키리크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키리크스의 파급력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친다는 점은 곧 클라우드 컴퓨팅의 위력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는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클라우드가 본



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인 컴퓨팅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이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약관 개정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클라우드 디바이스를 통해 전송된 개인의 이미지, 나이, 국적, 관심사, 친구 등의 정보가 클라우드 서버와 해당 서버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다는 것이다. 이점은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데이터 센터의 기반 설비와 유지에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몇몇 기업에 의한 독과점 형태를 띠게 될 우려도 있다. 하지만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단점들을 압도할 만큼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들이 훨씬 더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IT의 미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클라우드 컴퓨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기업들은 각 기업에 알맞은 액션 플랜을 수립해 클라우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개인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할 많은 편의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즐기면 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IT업계는 물론이고 산업 구조를 넘어서서 경제 전반,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력을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시할 미래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Cloud Computing



격적으로 IT 전반에 도입되면 컴퓨터는 MP3 플레이어나 e-book 리더,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디바이스 중 하나에 그치게 될 것이다. PC의 용량과 관계없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온라인에 공개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던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컴퓨팅 환경이 전혀 새롭게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우드가 본격화되면, 개인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 먼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할 하드디스크 용량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쓰지도 않는 기능 때문에 사용하는 기능 이상의 요금을 부담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악성 코드가 함께 설치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 또한 클라우드를 도입함으로써 내부의 데이터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데이터 센터 수의 감축

폭염도 물러갈 황소 같은 뚝심!

대구지방본부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경상북도는 다채롭다. 안동과 경주처럼 전통문화의 향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가 하면, 봉화와 청송처럼 깊은 산골짜기를 품고 있기도 하다. 또 대구라는 화려한 대도시가 있고, 동쪽으로 달려가면 포항, 울진 등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다. 대구지방본부의 사람들도 이처럼 다양한 개성들이 모여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황소 같은 뚝심이다.

묵묵한 일꾼들이 한자리에

대구의 여름은 덥기로 유명하다. 대구지방본부를 방문한 것은 공교롭게도 대구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뜨거운 여름날이었다. 자동차의 에어컨도 무용지물에 가까웠을 만큼 태양은 하늘에서 이글거렸다. 폭염의 날씨를 뚫고 대구지방본부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정도 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

는 듯 환한 얼굴들이 인사를 건넨다. 김근주 위원장을 비롯해 이영태 조직국장, 여성동 사무국장, 김시동 복지후생국장, 박병규 정의국장, 김윤애 여성국장, 백명기 조사통계국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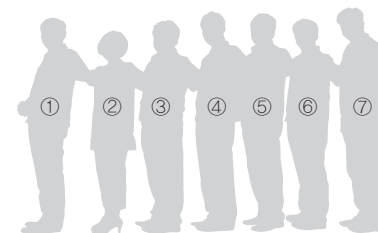
김근주 위원장은 각진 턱 선에 앙다문 입술이 뚝 부러진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고, 다른 상집 간부들도 하나같이 다부진 얼굴이다. 하지만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다. 경상도사투리로 조근조근 이어지는 간담회는 가족처럼 친밀감이 넘치고 화기애애했다. 완강한 뚝심에 부드러움을 겸비했다고 할까?

부산 다음으로 지부 숫자가 많은 대구지방본부는 56개 지부에 약 2,2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관할 지역은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상북도 일대가 모두 포함된다. 경북의 대표 오지로 꼽히며 'BYC'로 불리는 봉화(B), 영양(Y), 청송(C),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안동, 경주, 문경 그리고 동해의 포항, 울진, 영덕을 넘어 멀리 울릉까지 광범위하다.

여성동 사무국장은 "5,000여 명이던 조합원 수가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울릉도에만 많을 때는 1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12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시동 복지후생국장은 "도시, 농촌, 어촌, 산촌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복합적이다"라며 "지역이 광범위하고 각기 특색이 있어 개성이 넘친다"고 설명했다. 김근주 위원장은 "대구 경북 지역이 보수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조합은 그렇지 않다"며 "화합하는 조합, 깨어있는 조합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상집 간부들도 다양한 개성이 엮힌다. 하지만 그들은 8대에서부터 10대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한 뚝심으로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속력은 상호 간의 믿음에서 비

1. 김근주 위원장
2. 김윤애 여성국장
3. 박병규 정의국장
4. 김시동 복지국장
5. 백명기 조사통계국장
6. 여성동 사무국장
7. 이영태 조직국장





Interview _ 대구지방본부 김근주 위원장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보험과도 같죠”

부리부리한 눈에 각진 턱 선을 소유한 대구지방본부 김근주 위원장은 ‘황소’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러한 인상은 금세 지워지고 만다. 눈가의 하회탈 같은 주름이 푸근한 아버지외도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카리스마 넘치는 투쟁가로 그를 회상한다. 1978년에 입사해 1994년 남대구지부장으로 본격적인 조합 활동을 시작한 김 위원장은 전형적인 ‘투사’였다고 한다.

“당시 남대구지부의 조합원수가 520명에 달했어요. 작은 지방본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투쟁 현장에 나가면 항상 맨 앞에 섰죠. 그때 알던 사람들은 지금도 저를 과격한 투쟁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지방본부의 쟁의부장을 맡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가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물러서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타협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요.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본부 8대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그가 가장 중시했던 것은 바로 ‘화합’이었다. 당시만 해도 지부와 지방본부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모두를 아우르고 보듬고자 했다. 조합원들에게 신뢰 받는 이들을 상집 간부로 발탁한 것도 조직 내부의 화합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8대부터 10대까지 한결 같은 모습을 유지한 대구지방본부가 단단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랜 세월 조합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다. “조합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 없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아이들 둘만 남게 되었죠.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를 찾아 다니며 사고수습과 자녀 후원회도 결속을 하였지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오는데 안타까우면서도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이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조직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위하여 공고한 단결력으로 만든 노동공동체이므로 그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편하면 동지가 힘들다’는 슬로건도 저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표어인 셈입니다.”



롯되는 것은 물론이다. 김근주 위원장은 “상집 간부들을 구성할 때 현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그래야만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뢰와 화합의 조직 철학

대구지방본부 결속력의 구심점에는 김근주 위원장이 있다. 지부장 시절부터 그는 유명한 투쟁가였다고 한다.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선두에 서서 외치던 모습들이 지금도 조합원들의 눈에 선하다. 백명기 조사통계국장은 “오래 전 대구에서 가두행진을 할 때 당시 쟁의국장이었던 위원장이 차에 올라가서 진두지휘하던 모습은 정말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라며 “투쟁력과 집중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직업군인이었는데 노조를 좋지 않은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러한 강인함 뒤에는 부드러움도 간직하고 있다. 박병규 쟁의국장은 “위원장은 항우와 유방의 특징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대장부로서의 강한 이미지와 함께 부드러운 리더십도 발휘하는 것이지요”라며 “8대 시절부터 위원장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솔선수범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지부장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라고 말했다.

대구지방본부가 8대 집행부부터 내세운 슬로건은 ‘내가 편하면 동지가 힘들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문장이 아닐 수 없다. 김근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집 간부들은 이 슬로건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있다. 한 발 앞서 먼저 뛰고, 주저앉아 쉬기 보다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 시간이라도 먼저 일어나 조합원들을 챙기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마치고 대구지방본부 사무실을 나서면서 느껴지는 것은 황소 같은 독심 뒤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부드러움이었다. 단단한 결집력 뒤에는 신뢰와 화합의 조직 철학이 깔려 있는 탓이다. 대구지방본부 사람들과 함께라면 뜨거운 대구의 여름이 두렵지 않을 것만 같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왼쪽 윗줄부터
권호민 교육홍보부장,
이달현 쟁의부장,
이정수 조직부장,
방승오 복지후생부장,
송윤향 여성부장
정학영 지부장
최창성 사무부장
류병호 조사통계부장

ACE라는 자부심으로 뭉쳤다!

대전NSC지부



‘에이스(ACE)’는 흔히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통신의 중추신경과도 같은 백본(backbone)망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NSC지부는 KT의 에이스임을 자부한다. 그것은 조합원들의 수준 높은 기술력과 오랜 경력 때문만은 아니다.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으로 얻어진 끈끈한 결집력 또한 그들의 강점으로 꼽힌다.

중부권 최대 규모의 지부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어느 여름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자리한 대전NSC지부를 찾았다. 녹록한 날씨였지만 지부사무실에 들어서니 따사로운 햇살처럼 밝은 얼굴의 사람들이 인사를 건넨다.

정학영 지부장을 비롯해 최창성 사무부장, 이정수 조직부장, 권호민 교육홍보부장, 이달현 쟁의부장, 방승오 복지후생부장, 류병호 조사통계부장, 송윤향 여성부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전NSC지부는 10대 집행부 초기만 해도 340여 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거대한(?) 지부였다. 최근의 명예퇴직과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 179명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중부권 최대 규모의 지부임을 자랑하고 있다. 담당하는 지역도 넓다. 대전을 비롯해 논산, 금산, 공주, 조치원 그리고 원산도, 효자도 등 서해의 33개 섬까지 관리하고 있다. 대전NSC지부는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정학영 지부장은 “우리 지부는 우리나라 통신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백본망의 허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높다”면서 “고객전송, 기간전송망, 광케이블, 도서 및 기간 무선망, 모바일 전송망, 전력분야 등의 운용을 주요 업무로 하면서 홈과 법인의 기술자문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 조합원이 평균 2~3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통신 분야의 특허 19건을 등록했고, 회사 차원에서 20건의 우수사례를 전사로 확산한 바 있다”며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대전NSC지부가 개발한 EIMS(Edge Integrated Monitoring System)의 사례는 신문에도 보도되었을 만큼 친환경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 지부장은 “EIMS는 여러 영상 정보를 하나의 모니터에 집약시키는 기술이다”라며 “기존에 20대의 모니터가 필요했다면 EIMS는 1~2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부서장들 역시 자신의 업무에서는 베테랑이란다. 권호민 교육홍보부장은 “부서장 대부분이 무선, 교환 등 자신의 분야에서 20년이 넘는 경력자들이다”라며 “업무 현장에서 인정받으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소통의 꿈을 꾸는 사람들

대전NSC지부 사무실은 특이하게도 센터장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정학영 지부장의 의견이었다고 한다. 송윤향 여성부장은 “어찌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지부장과 센터장이 이웃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 지부장이 불협화음 없이 노사 간의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측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정도라면 조합원들과의 그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대전NSC지부는 무선팀, 선로팀, 고객가치팀 등 3개의 특수팀과 9개의 운용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용팀의 경우 대전시내와 공주, 논산, 금산, 조치원 등에 흩어져 있다. 정 지부장은 매주 화요일 운용팀별로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한번씩 순회하는데 한 분기가 걸리지만 그는 마다하는 법이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처럼 조합원들이 많다 보니 애경사도 찾아서 일주일이 쓴 살같이 흘러가기도 한단다. 지부의 장점을 묻자 부서장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부”라고 입을 모은다.

이정수 조직부장은 “한 달에 한 번 정기모임과 1년에 두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지부장과 간부들 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다”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점을 찾는다”고 말했다. 최창성 사무부장도 “대전NSC지부는 ‘조합원들의 효자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작은 어려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달에 한번씩 발행하는 지부소식지에서도 조합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대전NSC지부의 정성을 엿볼 수 있다. 10대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지부소식지는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이 소식지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긴다. 노동조합 소식, 회사의 이슈, 팀별로 치러진 크고 작은 행사들, 전출입 조합원들의 현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소식까지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 이야기가 오가는 내내 정 지부장과 부서장들은 대전NSC지부를 ‘KT의 에이스(ACE)’라고 칭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 자신감은 업무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소통에의 헌신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다.

전 조합원이 평균 2~3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통신 분야의 특허 19건을 등록했고, 회사 차원에서 20건의 우수사례를 전사로 확산한 바 있다



Interview _ 대전NSC지부 정학영 지부장

“초선의 초심, 끝까지 마음에 담겠습니다!”

대전NSC지부 정학영 지부장은 이중적인 매력을 지녔다. 진득한 말투 사이사이로 가볍게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날카로운 눈매를 지녔지만 입가엔 웃음기가 가득하다. 초선 지부장이라고는 하지만 어딘가 능수능란한 노련미가 엿보이는 인상이다.

정 지부장은 1988년 KT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24년 간 대전NSC에서 근무했다. 광통신 및 무선통신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고, 우리나라에서 열린 2002 부산아시안게임과 한·일월드컵 등 굵직한 국가 행사 때에는 현장에 파견돼 방송중계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독일에서 동식식 무선기술을 배워와 국내에 보급하기도 했으며, 서울에서 와이브로 상용화를 시작할 때도 초창기 멤버로 참여했다.

“제가 보기에 남는 것도 없을 텐데도 열심히 뛰는 조합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았어요. 그렇게 조합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2003년 교육홍보부장을 맡기 시작해 2006년 조직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2009년에 10대 집행부 초선 지부장에 당선되었고, 공부하고 일하는 지부장이 되자는 마음가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선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10대 집행부 초기에는 34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법도 하다. 그런데 그가 내린 해법은 간단하다. 몸이 힘들더라도 조금 더 다가가고, 조금 더 귀를 기울이자는 것이 그것이다.

“지부장으로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만 더 희생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함께 일하는 조합원들을 챙기기 시작했고, 애경사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또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자연스럽게 조합원들과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나더라고요.”

정 지부장이 조합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들을 모두의 힘으로 도운 것이다. 조합원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이 아픔을 함께 나누자고 하니 모두가 발 벗고 나섰다. 정 지부장이 항상 마음에 새기는 단어도 바로 ‘함께’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조합원들과 함께 간다는 다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와 대전에서의 맛집 순례기

따로국밥 VS 소고기양푼이찌م VS 채묵

대구에서 맛집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것이 65년 전통을 자랑하는 '국일따로국밥'이다. 국 따로 밥 따로 나온다고 해서 따로국밥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육개장과 비슷하지만 얼큰하면서도 개운한 것이 특징. 큼직하게 썰어 넣은 소고기와 대파 그리고 고소한 선지도 푸짐하다. 건더기를 건져 먹지 않으면 밥을 말수 없을 정도다. 반찬으로 나오는 깍두기도 맛갈스럽다. 이 집의 메뉴는 따로국밥(5,500원)과 따로국수(5,500원)가 전부이다. 이 집의 자랑인 신선한 선지도 추가(3,000원)할 수 있다.



국일 따로국밥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전동 7-1
문의 | 053-253-7623

기차역 주변의 음식점들은 뜨내기손님들이 많아 맛이 떨어진다는 통설을 무너뜨리는 집이다. 한우가 아니면 음식을 내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표 메뉴는 소고기국밥(5,000원)이지만 소고기양푼이찌(중 23,000원, 대 33,000원)를 맛보길 권한다. 언뜻 양푼에 담겨 나오는 매운갈비찌를 떠올리게 하지만, 첫맛은 매콤하고 뒷맛은 달콤한 것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고기를 먹고 나서 남은 국물에 밥을 비벼먹으면 더할 나위가 없다. 소고기국수(5,000원), 소고기찌개(8,000원) 등도 구수한 맛을 자랑한다.



역전 한우국밥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1가 1-187 105호
문의 | 053-256-0099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일대는 80년대 초부터 목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은 길가 좌우로 목집들이 즐비한 이른바 '목마을'이 형성돼 전국의 미식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수많은 목집들 중에 특히 솔밭목집이 유명하다. 가늘고 길쭉하게 썬 도토리묵에 잘 익은 김치와 김을 썰어 넣고 구수한 국물을 부어 먹는 채묵(중 4,000원, 대 6,000원)은 훌훌 목구멍을 넘어가 금세 바닥을 드러낸다. 여기에 커다란 양푼에 나오는 보리밥(6,000원)으로 배를 채우면 금상첨화. 보리밥은 양이 많으니 두 사람 당 하나를 주문하는 것이 좋다.



솔밭 목집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542-5
문의 | 042-935-5686

피톤치드로 샤워 하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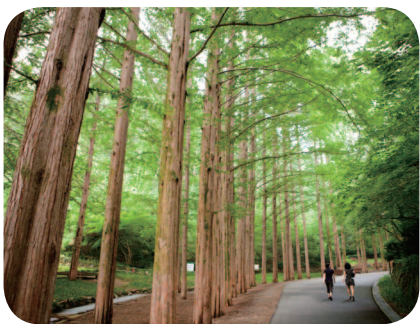
장태산자연휴양림

대전 시내에서 30분 정도 달렸을까? 어느새 차창 밖은 한여름의 짙은 녹음으로 우거져 있었다. 그렇게 길은 어느 숲속으로 이어져 '장태산자연휴양림'에 닿았다. 길가 좌우로 하늘을 찌를 듯이 곧게 솟아 있는 메타세콰이어가 먼저 방문객을 맞이하고, 곧이어 피톤치드로 가득한 싱그러운 숲내음이 코를 즐겁게 했다. 대도시 인근에서 산을 오르지 않고도 이렇게 울창한 숲을 만날 수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장태산자연휴양림은 고 임창봉 선생이 1970년대부터 24만여 평의 산기슭에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가꾸어온 곳이다. 잡목 숲의 원형을 해치지 않으면서 밤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을 계획적으로 식수해 자연스러우면서도 잘 가꾼 정원과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수십m의 높이를 자랑하는 메타세콰이어이다. 전국에 이름난 메타세콰이어길은 많지만 장태산자연휴양림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자그마치 6,240그루의 메타세콰이어가 짙은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 모습은 장관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놀이터 오른쪽에는 장태산자연휴양림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숲속 어드벤처'가 자리하고 있다. 총 길이 556m의 숲 체험 에코로드가 공중에 떠 있어 독특한 숲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 메타세콰이어 숲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처럼 날아 숲을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에코로드는 높이 27m의 스카이 타워로 이어진다. 이곳 정상에 오르면 장태산과 휴양림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높이를 달리하며 숲을 걷는 맛이 이채롭기만 하다. 이외에도 숲을 산책하다보면 이런저런 볼거리들이 방문객들을 반긴다.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연못을 비롯해 곤충원, 암석식물원, 형제봉 전망대 등 발길 닿는 곳마다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캠핑을 할 수는 없지만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등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것도 휴양림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언덕 사면에 아담하게 자리한 숲속의집은 숲속의 별장과도 같은 분위기여서 가족단위 휴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문의 | 042-585-8061~2, www.jangtaesan.or.kr





“KT에서의 16년, 동료들의 힘이 컸죠!”

대전NSC지부 서대전운용팀 이승우 조합원

동글동글한 눈, 코, 입에 거짓말 한 번 해보지 않았을 것만 같은 얼굴.

대전NSC지부 서대전운용팀의 이승우 조합원은 자신의 일과 가정 외에는 모를 것 같은 모습이었다. 올해로 마흔 살, 1995년 10월 공채 11기로 KT에 입사한 그는 방송중계업무, 초고속인터넷, 전송업무 등을 두루 거친 16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현재 4년 3개월 짜 서대전운용팀에서 고객전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대전광역시 2개 구, 28개 동의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교환회선 등의 운용과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네트워크의 중간역할이어서 현장 업무와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장 직원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최근 몇 년간 통신환경의 변화는 그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오랜 경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기술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승우 조합원도 장비와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사내 자격증을 물론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특급감리원 등의 자격증을 땀으로 뒹쳐서 따라가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앞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승우 조합원의 성실함과 끈기는 첫 발령지였던 충남 예산의 원호봉중계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운용요원이 총 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신입사원이 4명이었던단. 모두들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허둥지둥 할 때 중심을 잡아준 것은 고 이상용 소장님이었다.

“소장님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셨어요. 안테나 철탑에 직접 오르시는 등 언제나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퇴직하시고 병으로 별세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간 찾아뵙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스러웠지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었을 때, 이승우 조합원은 디지털방송 이동운용요원으로 전국의 축구장을 돌았다. 당시 선배, 동료들과 흘렸던 땀방울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대전 구장에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16강전이 펼쳐졌을 때였어요. 경기가 시작하기 한 시간 전 방송 주관사인 HBS의 엔지니어가 라디오 방송용 회선에 잡음이 있다며 급히 연락을 해왔어요. 즉시 달려가 원인을 찾고 접지를 보강해 문제를 해결했죠. 그걸 지켜보던 독일인 엔지니어가 'Wonderful!'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더군요. 그날의 일은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했던 것만큼 뿌듯했습니다.”

이승우 조합원은 KT에서 16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것을 버티게 했던 것은 선후배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받은 만큼 성실하게 나눠주는 일이 자신이 책임임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 순위에서 KT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경영진과 노동조합 그리고 우리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컴퓨터 교육은 재미있어야죠.”

IT서포터즈 부산북부팀 김상훈 조합원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애교 섞인 사투리로 부르는 학생들 덕에 사람 좋은 컴퓨터 선생님의 입과 발이 바빠진다. 진도는 일단 제쳐두고 했다. 그 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느린 한글타수에 뚫어져라 컴퓨터와 씨름 아닌 씨름을 하는 있는 학생들은 다름 아닌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 경남 양산시의 (사)희망웅상 사무실은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베트남,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10여 명의 아줌마들과 IT서포터즈 김상훈 조합원의 화기애애한 컴퓨터 교실로 변한다.

그나마 오늘 수업은 'ITQ한글자격증'반 수업. 이 수업을 듣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온지 3~4년이 되어 한국어도 능숙하고 수업 이해도 빠른 편이다. 통역도 필요하고 기초가 없는 다문화가족의 초급반 수업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수업 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이 자칫 어렵고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쉽게 이어갈 까라는 고민은 그로 하여금 매일 아이디어를 짜내고 공부를 하게 만든다.

“일단 재미있게 수업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처음 컴퓨터를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워해요. 다문화가족, 아동센터, 노인 분들 모두 나름의 어려움과 수업의 지겨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수업 중간마다 동영상 등 재미있는 요소들을 반영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죠. 오랜 시간 보다는 간단명료하고 재미있게 핵심을 짚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 입사 이래, 협력사 담당, 전송실 업무, 모뎀업무, 현장개통AS 등의 일을 해온 김상훈 조합원이 IT서포터즈 5기로 정식 발령이 난 것은 올해 1월. 그에게 IT서포터즈는 소외계층에 대한 컴퓨터교육 봉사 와 자기 개발을 통한 발전의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일이었다. 더구나 그는 수많은 IT자격증을 보유한 정보통신공학과 석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IT서포터즈 활동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일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사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IT서포터즈는 교육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안일한 생각을 했었죠. 현업에 있을 때도 이곳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눈으로 IT서포터즈를 본 게 사실이니까요. 한데 막상 와서 보니깐 그게 아니더군요. 남 앞에 선다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담감이 컸어요. 아무리 기초지식이 없는 분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고, 교재를 만들고,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죠.”

그와 더불어 부산북부팀 총8명의 IT서포터즈 조합원들은 1년에 780시간이라는 1인당 교육목표시간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낸다. 제한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아동센터나 다문화가족, 노인 등 소외계층의 컴퓨터 교육을 위해 단체들을 방문하고 수업 프로그램도 직접 개발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다문화가족과 스마트폰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 “그들이 수준 높은 박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지만,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컴퓨터를 켜지도 못하던 분들이 두려움 없이 컴퓨터를 대하고, 다문화가족이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실제 지난 4월 부산시 공무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결혼이주여성 1호 공무원이 된 베트남여성도 IT서포터즈의 컴퓨터교육을 수료하고 그 같은 결실을 맺었다.

김상훈 조합원은 소탈한 웃음과 함께 KT를 알리는데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는 IT서포터즈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감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늘, 교육생들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참 가식이 없었다. 투박한 부산 사나이의 애교 섞인 당부가 싫지 않은 이유다.

“IT서포터즈, 예쁘게 봐주이소!”



(사)희망웅상에서 운영하는 다문화레스토랑 <공감>

이곳은 지역에서 공채로 선발된 결혼이주여성 7명이 함께 일하며,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등의 다문화요리를 화학조미료나 인공감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신선한 재료로 공급하고 있다.

IT서포터즈는 <공감>의 직원들에게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운영방법을 무료 교육하고 있다. 블로그는 <http://blog.naver.com/00gam>

TIP

IT서포터즈 무료교육 신청 전화 1577-0080(지역별 팀으로 연결) 홈페이지 <http://www.itsupporters.com>

“사람 좋아하는 병,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조직활성화 전문그룹 (주)잔디와 소풍 대표/교수 김인식



‘잔디는 밟을수록 크는 풀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성장할 것이며 초등학생의 소풍 가기 전날 밤 그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한다.’ 건네 받은 명함 속 글귀가 심상치 않다. 힘들고 고단한 일상이 행복이 되고, 고통 없이는 발전도 없음을 각인시키는 문장 속에 이 회사의 경영철학이 슬쩍 엿보인다. 이쯤 되면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이 명함의 주인공이 궁금해진다.

조직활성화 전문그룹 (주)잔디와 소풍의 대표이자, 교수인 김인식. 명함에 찍힌 두 가지 이력처럼 그는 기업 초청 교수로 강의를 펼치는 명 강사이자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인이다. 김교수 스스로 “나는 장사와 강사를 겸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이 일은 그러나, “누군가를 일깨워 주는 장사”라는 점에서 무한한 자부심을 동반한다.

조합원들은 어쩌면 지난 해 5월, ‘KT올레한마당잔치’에서 울리던 사회자로서의 김인식 교수의 목소리를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1980년 체신부 말기에 첫 인연을 맺은 이후 31년을 KT와 함께 해 온 그가 조직활성화 전문 그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본격적인 자신의 길로 뛰어든 것은 올해 1월. 수려한 외모에 화려한 언변을 갖춘 김교수의 대내외적 이미지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사에 귀 기울이는 순간 잠시 눈이 휘둥그레 질 수 있다. 그리고는 곧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그의 달변은 입술이 아니라 체험에서 비롯된 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 때문에 공고에 진학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3학년 때 체신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처음에는 맨홀을 유지 보수하고 전신주를 오르며, 전자교환기를 운영하고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수요조사를 하는 등 각종 굵은 일들이 그의 몫이었다.

맨홀 속에서의 일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쑥스럽고 창피했다. 누군가는 공부 못하면 너도 저 아저씨처럼 된다는 얘기를 지나가며 내뱉었다. 김교수는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러기를 10년, 회사에 컴퓨터가 도입될 시점, 그는 남들보다 먼저 익혔던 컴퓨터 능력으로 사내 직원들에게 우연히 컴퓨터 강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시작으로 지역주민에게 정보통신센터에서 정기적인 강의를 하게 된다. 당시 그의 강의는 소위 아줌마부대에게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면서, 명달아 인터넷 하이텔의 판매도 급증했다. 이후로, 연이어 권유 받은 사내서비스강사 자리에서 그는 마침내 마이크 앞에서 뛰어난 자신의 재능을 발견

하게 된다. 이 때가 1995년. 김교수는 당시를 “내 인생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라고 했다.

“남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 것이 회사에는 유익이 되고, 저에게는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을 절실히 느낀 거죠.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것은 자신만의 만족이지만 그것이 회사의 영업과 성과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역량이 케도에 올랐을 무렵, 그는 이번에는 사내 연수원 강사직에 0순위로 발탁된다. 이로써 2000년부터 2010년까지 KT인재개발원 리더십강사로서의 김인식과 신입사원들의 인연이 이어져 갔다.

지금껏 그의 손을 거쳐간 KT의 신입사원만도 수천 명에 이르지만, 그의 언변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고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부끄럼 많고 유난히 말주변이 없었던 그가 대중들 앞에 적응한 것은 고교시절 교내 밴드 보컬을 맡아 노래했던 덕이다. 20살 때부터는 레크리에이션도 시작했다. 첫 사회 때는 실수를 연발해 못매를 맞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실수연발의 초보 강사가 후에 ‘한국레크리에이션지도자 협회장’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한국강사협회 상임이사’, ‘정보통신봉사상 수상’, ‘대한민국 명강사 53호’, ‘국제공인THOC’, ‘C4P코치’, ‘NLP코치’, ‘에니어그램F’ 등 그의 이름 앞

에 붙는 수많은 수식어들은 큰 무대를 꿈꾸며 곳곳이 이어 온 그의 노력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이 모든 밑거름은 KT에서 배우고 비롯된 것이라는 김교수는 조합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지금 만약 힘든 일에 처해있다면,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 이후에는 큰 약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KT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를 성장시켜 KT가 나를 찾게 되는 조건으로 자신을 만드는 것이 KT를 졸업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 마지막으로, KT와 반평생을 같이 했다면 내 고향이 더 잘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퇴직자로서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수는 자신이 처음 KT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던 때나 지금이나 한결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회사가 다니기 힘들다는 이들을 위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올인 할 계획이다. “돈 내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 그것을 만드는데 일익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KT를 더 즐거운 직장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며, KT를 졸업한 이들의 미래도 밀어드리고 싶다는 꿈도 함께였다.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자신을 상상해본다는 김인식 교수. 한 마디 말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의 삶이, 그의 강의를 하나의 해답이 될 지도 모르겠다.

문의 | 010-6758-5858, <http://facebook.com/kbsmbcsbs>

탁구공에 열정과 소통을 담는다



KT탁구동호회

탁구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둘 이상이 모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우러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회원 간에 친밀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지사. 그래서 KT탁구회 회원들에게는 훈훈한 정과 동료애가 넘친다.

직장단체전 최고의 실력파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 30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KT본사 지하 5층 탁구장이 사람들로 붐볐다. 해마다 분기별로 열리는 공식대회 중 하나인 친선탁구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벽면에는 대진표와 선수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일찍부터 탁구장에 도착해 몸을 풀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이 분주하다. 잠시 뒤 참가 인원이 모두 모이자 KT탁구회 신광석 회장이 “오늘은 승부보다는 우정을 쌓기 위한 시합이니 모두가 기량을 발휘해서 충분히 땀 흘리고 마지막까지 한 명도 다치지 않게 즐겁게 뛰어 달라”는 말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 시합은 부문별 대항으로 진행됐다. A~D조 총 4개 조로 나뉘어, 각 조에는 6~7명의 선수들이 배치돼 경기를 펼쳤다.

단체전은 11점 3세트로 진행되고, 단체전이 끝나면 고수들의 개인전이 이어질 예정이다. 경기가 시작되자 선수들의 눈빛이 매서워지고, 가볍게 날아오른 탁구공이 날카롭게 상대방의 진영에 내리꽂힌다.

빠르고 경쾌한 움직임에 채 5분도 되지 않아 선수들의 얼굴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팽팽한 실력으로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로 펼쳐졌다. 그렇게 2시간 동안 기분 좋은 긴장감 속에 경기가 이어졌다.

KT탁구회는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5년에 설립된 본사 탁구회에는 현재 1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본사 탁구회는 분기별로 공식 게임을 개최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마다 수시 모임을 갖는다. 지난 2009년부터는 외부 단체와 교류전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2008년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 중인 전문 코치의 개인 레슨. 덕분에 단체전 실력이 부쩍 늘었다. 본사 탁구회는 지난해 분당구청장기 탁구대회에 참가해 직장인 단체전에





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2009년에는 성남시장기 탁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주영현 총무는 “지속적인 레슨으로 회원들의 실력이 균등해져 단체전에서 한결 유리해졌다”며 “지역에서도 직장단체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발력 늘고 다이어트 효과 탁월

탁구는 가까이에서 순간적으로 빠른 볼을 처리해야 하므로 오랫동안 운동하면 시야가 빨라져 순발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해 여성들에게도 인기 만점.

“여성 회원들의 경우 15분 이상 레슨받기가 힘들 정도로 운동효과가 탁월합니다. 실력이 수준급으로 올라가거나, 제대로 레슨을 받고 땀을 흘리면 다이어트 효과가 큼니다. 일주일에 두 번 15분씩 두세 달만 레슨을 받아도 10킬로그램 이상 빠지거든요.”

주영현 총무의 말에 유무선네트워크전략본부의 정지영 과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운동이 많이 되고 레슨을 받기 때문에 실력이 느는 게 보여 재미있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그렇듯 꾸준히 실력이 늘지 않으면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 본사 탁구회에서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는 유무선네트워크전략본부의 김양모 과장은 탁구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 “즐거이는 탁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역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번 탁구채를 들면 2시간 이상 시간을 투자해 꾸준히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

“탁구 실력은 시간 투자와 비례합니다. 특히 탁구는 처음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지만 실력이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아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때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갖고 꾸준히 하는 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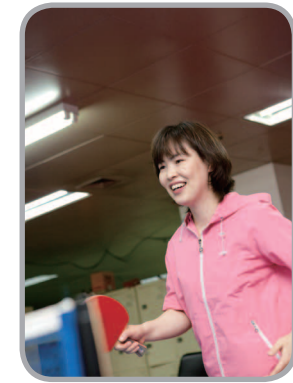
KT탁구회는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KT 탁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전국대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포부를 전하며 주영현 총무는 회사의 지원에 대한 바람도 잊지 않았다. 과거에는 KT 건물마다 탁구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탁구장이 사라지는 게 현실이라며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탁구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탁구는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 여름 이열치열 탁구로 건강도 지키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둬 보는 건 어떨까.



KT탁구회 가입방법

KATE 홈에서 'KT탁구회'로 검색하여 회원 가입 후 활동할 수 있다. 레슨을 받을 때는 초보자가 실력이 빨리 늘고 자세도 프로처럼 예쁘고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Interview _ KT탁구회 주영현 조합원

탁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

지난 2005년 본사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며 본사 탁구회 활동을 시작한 주영현 총무. 2009년부터 총무를 맡고 있는 그는 KT성남지사(옛 성남전화국) 근무 당시 직접 탁구회를 만들고 레슨을 도입했을 만큼 탁구에 열정적이다. 본사 탁구회에 레슨을 도입한 데에도 그의 역할이 컸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탁구채를 손에 잡은 후 20년 정도 쳤는데, 구력에 비하면 실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웃음) 그저 탁구장에 가서 ‘시합 한 번 합시다’라고 말할 정도의 실력은 되지요. 요즘은 업무가 바빠서 많이 못 치는데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쳤습니다.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이라 보기와 달리 무척 힘들지만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주 총무가 꼽은 ‘내 인생 최고의 게임’은 1997년 열린 성남시장기 탁구대회. 혼성복식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다. “저도 그랬고, 파트너인 여직원도 상대 팀에 비해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복식게임은 파트너와의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력이 부족했는데도 계속 경기에서 이기니까 응원하는 분들도 놀라더군요. 사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경기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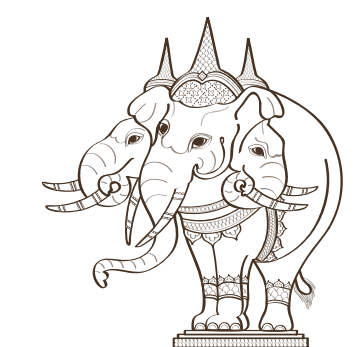
주영현 총무는 휴가를 가거나 멀리 출장을 갈 때도 항상 차에 라켓을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탁구는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손쉽게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냥 지나치고 말 인연도 탁구로 인해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그에게 탁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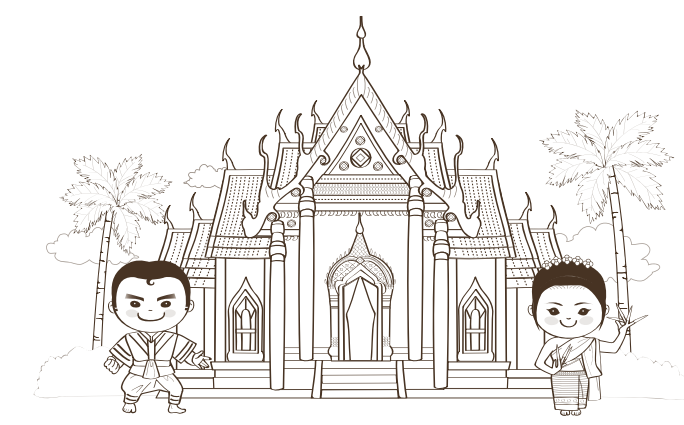


없는 것이 없는 욕망의 블랙홀
태국 '방콕'

'방콕 - 파타야 4박5일' 가장 기본적이고 저렴한 패턴으로 이젠 흔한 여행 코스가 되어버린 태국. 그러나 태국의 수도 '방콕'은 세계적인 여행 잡지 'Travel & Leisure'가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도시로 2년 연속 선정할 만큼 유난히 골수팬이 많은 곳이다. 대체 방콕의 어떤 매력이 이렇게 강력한 중독성을 내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방콕의 다이나믹함에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발전상을 보여주기도 하듯 우후죽순 생겨나는 빌딩들 사이로 굳건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문화, 바래고 낡았지만 여전히 팔딱거리는 뒷골목과 재래시장, 그리고 세계 3대라는 찬사를 받는 최고의 음식. '여행자의 천국'이라는 닉네임답게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여행 인프라까지... 방콕은 이렇게 무한한 매력을 뽐내며 여행자들에게 끊임없이 손짓하고 있다. 만약 이 복잡한 대도시가 초행이라면 자유여행자들의 집결지인 '카오산 로드'로 찾아가도 좋겠다. 카오산 로드는 주변 국가로의 이동이 편리한 이유로 장기 배낭족 에겐 베이스캠프와도 같은 곳이다. 저렴한 숙소와 식당, 에이전시를 찾아 물려든 전 세계 여행자들로 언제나 북적북적하다. 이 동네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만 4곳이 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한국말로 조언을 청하기도 편하다. 노천바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며 사람 구경하기에 좋고, 저렴한 돈으로 태국의 정통 마사지를 받아보는 호사도 누려볼 수 있다. 또한 방콕에서 두, 세 시간 걸리는 타 도시로의 이동도 괜찮겠다. 다만, 명랑여행을 위해서라면 핑크 비즈니스로 유명한 도시, '파타야'는 되도록이면 피하도록 하자. 다 늙어 쭈글쭈글해진 피부와 성성한 백발을 가진 서양 노인네가, 갓 스물이나 됐을까 말까한 어린 현지 아가씨와 팔짱 끼고 다니는 모습을 5초에 한 번씩은 목격하기 때문이다. 결코 남세스러워서만은 아니다. 비록 육신은 퇴화했으나 자본의 힘을 빌어서라도 사랑을 갈구하는 노인과, 이국 어린 신과의 로맨스로 애써 가난을 면해보려는 어린 처녀의 조합이 웬지 애달프고 처연하기 때문이다.



*** TIP : 성수기에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타이항공, 제주항공 등이 매일 운항한다. 수안나품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카오산 로드'로 가면 한국 여행사, 한국 게스트 하우스, 한국 식당 등이 널려 있으니 각 도시로 이동하는 티켓과 호텔 바우처 사기에도 안심맞춤이다. 무비자.



다양한 풍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아시아의 4대 여행지

해외여행 패턴이 여행사에 의존하는 패키지여행에서 자유여행으로 급변하고 있다. 자유여행 비율은 매년 10~20% 꾸준히 증가하여, 이미 지난 2007년에 패키지여행 비율을 넘어서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여행객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며, 그 중 패키지여행이 30%, 자유여행은 70%의 비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패키지여행의 시대가 가고 있는 것이다. 심신을 재충전하고 활력을 되찾는 여름휴가, 내 돈 쓰며 쫓기듯 하는 여행이 싫다면 내가 직접 준비하고 동선을 짜는 자유여행을 시도해보자. 한국에서 비교적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며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한 아시아 4대 도시를 추천해본다.



가만히 걸기만 해도 넉넉해지는 도시 라오스 '방비엥'

나룻배를 타고 메콩강을 유람하고, 연유를 가득 탄 라오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그것도 귀찮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유유히 흐르는 송강을 바라보며 망중한을 즐긴다. 이처럼 바쁜 일상을 떠나 마음껏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한량 여행자라면 단연 라오스가 제격이다. 라오스에는 매년 순수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 그리고 슬로트래블(느린 여행 · Slow Travel)에 매료된 자유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특히 수도 비엔티안에서 미니버스로 세 시간만 가면 도착하는 '방비엥'은 작은 계림이라 불리는 곳으로, 수려한 산세와 무공해 자연, 유유히 흐르는 강 풍경과 더불어 망중한을 즐기기에 그만인 곳이다. 따라서 라오스를 관통하는 느낌은 '낯설음'이 아니라 '편안함'이다. 물가가 저렴한 곳이지만 유럽인들의 거주가 늘어나면서 수준 높은 인테리어와 고급 식기를 갖춘 레스토랑도 준비하다. 여행자들이 몰리는 중심지를 살짝 벗어나면 우리네 6, 70년대와 흡사한 풍경이 펼쳐진다. 폐차 직전의 택시나 고물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길은 쪽 뺨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먼지 펄펄 날리는 흙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곧 불평이 사라진다. 느리고, 불편하고, 부족해도 백만불짜리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 TIP : 한국에서 라오스까지 직항편은 없다. 베트남 하노이를 거쳐 수도인 비엔티안으로 들어간다. 성수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베트남항공 등에서 인천~하노이 직항편을 매일 운항한다. 15일간 비자 없이 여행 가능하다.

오감만족 휴식 대만 '타이페이'

우리나라에서 불과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만은 문화유산, 옛 거리의 정취와 더불어 다양한 조리법의 보양식을 자랑하는 나라다. 또한 '타이페이'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은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로 그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약 62만 점의 중국 보물과 미술품으로 가득한 이곳은 대부분의 전시품이 천년 이상 초기 송나라 황실의 물건들로 중국 황실 컬렉션 중 최고의 것들이다. 그 밖에도 대일전쟁과 국민 혁명 중 전사한 애국지사를 모신 '충렬사'도 놓치기 아까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만 여행을 매력적으로 각인시키는 곳은 '야류 해상공원'과 '지우펀'이다. 야류해상공원은 자연의 힘과 침식에 의해 생성된 거대하고 특이한 모양의 바위가 여행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타이페이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야류는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암괴석이 늘어난 해변으로, 독특한 모양과 이름을 지닌 바위들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고 있다. 이는 아이와 함께한 가족 여행객에게는 훌륭한 자연교육 체험의 장이 되기도 한다. 대만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지우펀'



거리는 1920년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곳이다. 지우펀은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온에어'라는 드라마에도 등장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가파른 급경사면을 따라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에는 독특한 향취를 풍기는 상점과 고풍스러운 찻집과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찻집에 앉아 굵이굵이 연결된 골목길을 내려다보면서, 아등바등 파도 타듯 질주하던 일상을 차분히 정리해 보기에 좋다.

✳ TIP : 성수기에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의 국적기와 에바 항공, 중화항공 등이 매주 운항한다. 무비자.

상그릴라가 바로 이 곳에 중국 '윈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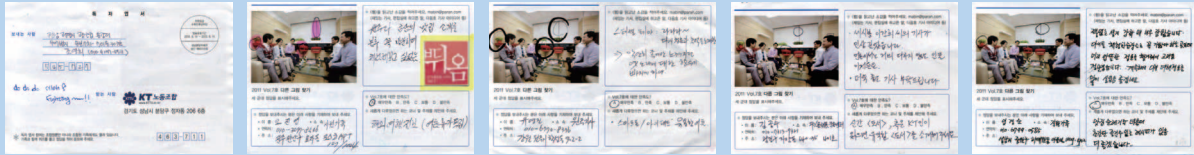
"세상만사 번뇌에 지친 사람이라면 꼭 한번 '상그릴라'에 가보길 바란다.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 넣기에 이곳만큼 안성맞춤인 데는 없을 것이다." '상그릴라'는 영국의 소설가 제임스 힐튼의 작품 '잃어버린 지평선'에 등장하는 곳으로, '지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천국'을 일컫는다. 그리고 힐튼은 그 지상천국이 바로 중국의 '윈난성'이라 말한다. 태국 방콕이 동남아 지역의 배낭여행자 천국이라면, 윈난성은 동북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배낭여행자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곳곳을 여행한 사람들이 중국내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꼽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윈난성'이다. 이곳은 특히 중국 내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지닌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더불어 다양한 소수민족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작은 기와집들이 수없이 모여 거대한 풍경을 이룬 모습을 바라보면, 문득 타임머신을 타고 오랜 옛날 어딘가 낯선 시간 속에 떨어진듯한 아득한 기분이 든다.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 또한 매력으로 꼽는다. 윈난성은 크게 쿤밍(곤명), 따리, 리장 등으로 나뉘는데 쿤밍 시내에는 공황에서 매우 가깝다. 택시로 약 10분정도 달리면 중심가가 나오는 쿤밍은 윈난성의 성도로 6백만 인구의 대도시다. 쿤밍은 춘성(春城)이란 별명답게 일 년 사시사철이 봄 날씨이며 아열대 기후지역이어서 먹거리도 풍부하다. 그러나 윈난성의 압권은 무엇보다 맑은 '진사강'이 도시를 감싸 안고 있어 동양의 베니스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리장'이다. 리장의 구시가는 일명 '리장 고성'이라 불리는 담벼락 하나 없는 아름다운 기와집들이 들어차 있고, 수백 년 전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근에는 여름에도 만년 설산을 볼 수 있는 해발 5,600미터의 옥룡설산이 자리 잡고 있다. 윈난성의 또 하나의 자랑, 따리는 세계 배낭여행자들이 모이는 휴식처 가운데 하나다. 과거 작은 촌락에 지나지 않았을 이곳이 수년만에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메카 가운데 하나로 변화했다. 다소 상업적으로 변화한 리장에 비해 따리는 아직 소수민족의 순박함이 남아있는데다, 마치 바다를 닮은 251㎡에 이르는 거대한 담수호인 '얼하이'가 있어서다.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과거 작은 촌락에 지나지 않았을 이곳이 수년 만에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메카 가운데 하나로 변화한 것이다.

✳ TIP : 대한항공, 중국항공 등이 곤명까지 직항 운항한다. 4시간 소요. 비자가 필요하다.

VOICES OF READERS

독자엽서 당첨자

- | | | | |
|-----|----------------|-----|-----------------|
| 임경순 |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 정유진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 유영진 | 강원도 원주시 학생동 | 김건수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
| 오진영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 임세묵 |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
| 김중수 | 서울 광진구 자양동 | 조화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 조영희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 김범석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
| 송용식 | 서울 종로구 연건동 | 김광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
| 장아름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 신용학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
| 김중수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 박연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
| 신동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 박종오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
| 민경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 이재순 |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보세요. 세 군데의 다른 부분이 보이시죠?
정답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QUIZ QUIZ

KT임직원을 위한 상조 서비스

다운플랜의 차별화된 서비스!

상조 1구좌가 다 똑같은 구좌가 아닙니다
다운플랜의 추가요금 근절 및 행사비용 절감 만으로도 다운플랜에
납입한 회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다운플랜은 거품이 없어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격의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영업비 제로, 운영비 최소화)

두월!

고객님의 회비를 100% 은행 적립하므로 기존 상조회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원금 유실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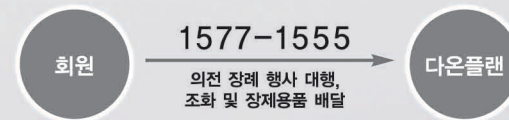
세엳!

상발생으로 인한 고객님의 정신없는 경황을 틈타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근절하였습니다.(노잣돈, 행사요원의 수고비 등)

네엳!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드립니다.
(음식 등 비용 최소화, 장례식장의 안치실, 접견실 등 할인)

상 발생시 다운플랜(1577-1555)으로
연락하시면 one-stop 서비스됩니다.



(주)다운플랜은 KT임직원 복지를 위해 KT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고품격 장례 서비스를 약속하는 상조브랜드입니다.
KT임직원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상조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문의
신청 **1577-1555**
www.daonplan.com





독 자 엽 서

보 내 는 사 람

□ □ □ - □ □ □



받 는 사 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6층

* 독자 엽서 참여는 조합원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퀴즈를 풀고 정답을 적어 응모해 주세요.

4 6 3 - 7 1 1

